

# 방과후마을학교 관련 안내 지침서 발간

전북교육청, '설렘이 있는 방과후마을학교' 발간·배부

방과후마을학교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자가 발간됐다.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2022 방과후마을학교 안내 책자인 '설렘이 있는 방과후마을학교'를 발간, 9일부터 도내 초·중학교와 방과후학교지원센터와 방과후마을학교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방과후마을학교의 의미

와 현황, 만족도, 성과와 과제, 지역·권역별 방과후마을학교 운영 현황, 방과후마을학교 지도 등이 담겼다.

현재 방과후마을학교의 형태는 ▲주 1~2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형 ▲돌봄과 방과후프로그램으로 매일 운영하는 돌봄형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학교-마을 연계형

▲2~5개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전부를 마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학교군-지역연계형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해 위탁 운영하는 지역거점형으로 나뉜다.

이에 따르면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하는 방과후마을학교의 만족도는 2016년 이후 꾸준히 90%를 상회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마을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의 삶

과 배움이 하나가 되는 교육을 지향한다"면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처럼 교육으로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184개 기관의 방과후마을학교에서 5,418명의 학생이 888명의 마을학교 강사와 함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미래 고등교육 선도 위해 혁신”

전주대 개교 58주년 기념식

전주대학교는 지난 4일 예술관 II 아트홀에서 개교 58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부 기념예배는 전주영생교회 김동연 목사의 기도로 시작으로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차중순 이사장이 '오해에서 이해로'를 주제로 설교했다.

박진배 총장의 기념사로 시작된 2부 기념식에서는 김희수 총동문회 부회장의 축사와 연공상, 우수교육자상 수퍼스타지원상 공로상 및 표창장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연공상은 30년 장기근속한 서은혜(일본어문화학과), 김미진(문헌정보학과), 김갑룡(회계세무학과), 류두현(환경생명과학과), 정호연(산업공학과), 32명의 교직원들이 20년, 10년 연공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대학발전에 기여한 교직원

에게 수여되는 우수교육자상과 우수연구자상, 수퍼스타지원상은 각각 박근철 교수(일본어문화학과), 변주승 교수(역사문화콘텐츠학과), 서승환 과장(교수학습개발센터) 등 18명의 교원과 5명의 직원이 수상했다. 특히 40년간 학교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강중순 사범대학 행정지원실장에게 공로상이, 학교를 위해 헌신한 경비·미화원에게도 표창장이 수여됐다.

박진배 총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교직원, 재학생, 동문 모두가 하나가 돼 교육부 평가와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급감, 비대면 뉴노멀 등 유례없는 격변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개교 58주년을 넘어 100주년이 되는 비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배 총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교직원, 재학생, 동문 모두가 하나가 돼 교육부 평가와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급감, 비대면 뉴노멀 등 유례없는 격변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개교 58주년을 넘어 100주년이 되는 비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김다희 대학원생, 전북학 신진연구자 학술상 수상

지역과향수를 통한 골목재생 연구 논문 통해 수상 영예

전북대학교는 김다희 대학원생(고문헌인류학과 박사과정)이 최근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에서 열린 '제3기 전북학 우수 석·박사 학위논문 시상식'에서 '전북학 신진연구자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전북학 관련 인문사회 및 이공계 분야 우수 석·박사 졸업생에게 연구 지원금을 지원해 전북학 신진연구자를 육성하는 사업

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 전북학 신진연구자 학술상을 받은 김다희 대학원생은 '지역과 향수를 통한 골목재생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다희 대학원생은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4단계 BK21 '문화·문명의 연구와 활용을 통한 인류세 지역위기기복' 교육연구단(Expert-RACC, 단장 임경택)의 장학 지원을



반며, 문화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

들을 모색하기 위한 학문연구에 힘쓰고 있다.

김다희 학생은 "이번 대회 성과를 통해 앞으로도 전북 지역 도시재생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학문연구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원도심에 산재해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연구는 지역 사회가 처한 위기 극복의 동력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수상자의 연구논문은 올해 8월 발간되는 '전북학연구' 6집에 수록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천호성 후보, '4+1 미래학교' 시스템 도입해 미래학교로 전환을

"1주일 중에서 4일은 교과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1일은 교외에서 체험학습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는 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의 확립적 학교교육 시스템을 '4+1 미래학교'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중고 교육에서 미래 사회의 직업탐색과 진로개척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매우 심도있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을 기르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천 예비후보는 "우리 전북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을 기르는 것"이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4+1 미래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교실수업은 4일하고 하루는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설계를 위해 해내에서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 하루를 확립적 학습과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교실에서는 충족하지 못하는



일주일 중 4일은 교과 교육 · 1일은 교외 체험학습 진행 제시

광주 · 전남과 연대로 '호남권 진로체험생태계' 구축

자신의 흥미와 소질을 개발하고 미래역량을 기르는 날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다양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즉시 진로·

진학교육 컨트롤타워인 전북학생진로교육원을 신설해 초·중·고 생애주기별 진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1:1 맞춤형 진로진학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경험과 배

움을 확장하고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육연구정보원 및 과학교육원과 연계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폐교를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로진학상담교사 정원을 별도로 확보해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나눔뱅크를 설립해 교육기부에 대한 능동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천 예비후보는 호남권인 광주, 전남과 연대로 공동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호남권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호남권진로종합센터'를 운영하고, 호남권 체험시설을 발굴해 '호남권 진로체험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4+1 미래학교'를 통해 전북의 학생들을 교실에서는 교과수업에 충실하고, 교실 밖에서는 자신의 꿈과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자랑스러운 전북의 딸·아들, 전북의 손주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46주년 개교기념식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지난 4일 비전관 4층 대강당에서 개교 4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삼모 총장과 보직 교수, 차중순 신동아학원 이사장 등 관계자 10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교직원 합창단 '조이엘 카이'의 '은혜'라는 특송에 전주비전대 모든 구성원들의

지난 46년간의 성상이 오직 하나 남은 은혜였음을 고백했던 1부 기념예배에서 모든 비전 공동체는 한 식탁에 둘러앉은 공동체임을 확인했다.

2부 기념식에서는 정삼모 총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학교 발전기금 전달식, 외부 감사패 수여, 장기 근속자에 대한 근속패 수여 및 우수 부서 시상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정은성 기자

## 전북교총,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환영'

'새 정부 교육개신과제' 상당 부분 반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국가의 교육책임 강화와 교육본질 회복,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교총이 현장교사들과 함께 제안한 새 정부 교육개신과제가 상당 부분 반영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총이 인수위 대상 방문, 정책협의, 기자회견 등에서 제안했던 학력진단·지원시스템 구축,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격차 해소, 교원 업무 경감, 유보 통합, 교교학

접제 보완, AI교육 활성화, 수석교사 임용 확대, 대학평가 개선 등이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교총은 "이제 국정과제를 지수가능한 세부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히 현장교장에 입각해 현장과의 소통, 공감, 합의를 바탕으로 입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지만 직업계고 발전과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대입아카데미 직무연수 실시

도내 고등학교 교사들의 대입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2년 대입 아카데미 직무연수를 오는 7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에 위탁·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도내 일반계고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각각 40명을 선발했다. 강사로는 전북 대입진학지

도지원단 소속 교사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입상담교사로 활동하는 교사들이 참여한다.

기본반은 진학지도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교사, 현행 대입제도 및 전형정보가 부족한 교사, 체계적인 대입 진학지도 방법을 알고자 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심화반은 올해 대입진학지도지원단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일반계 고3 진학부장·교3 담임교사 유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LINC 3.0 사업 선정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육성사업 수요맞춤형성장형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비전대는 2012년부터 1단계 사업 선정 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LINC 4.0 사업을 연이어 수행해 왔으며, 1~2단계 LINC 4.0 사업을 통해 구축한 산학협력 기반을 토대로 2021년 전국 전문대 취업률 1위 달성 등의 우수한 성과를 냈다.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육성사업은 총 6년 사업이며, 전주비전대는 이번 평가를 통해 6년 동안 12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전주비전대학교는 산업체 요구 분석을 통한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및 확산을 통해 사회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지역산업 인력수급에 있어 미스매칭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정상모 총장은 "3단계 산학협력 사업(LINC 3.0)을 통해 배출된 우수 학생들이 기업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전·현직 교수 300여명, 서거석 예비후보 지지 선언

"성과로 검증된 청렴한 교육감" 서거석 후보 공개 지지



서거석 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전북대학교 전·현직 교수 300여 명은 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로 검증된 청렴한 교육감 서거석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자발적 지지자거나, 혹은 개인적인 동의를 얻어 구성된 모임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서거석 예비후보는 실력이 검증된 인물이며, 해내는

사람이다"며 "전북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기에 처한 전북대를 단기간에 명문대학의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대 학장을 연임하고, 총장 또한 연임했다"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며, 전북대로서도 직선제 최초의 연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 재선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대학 구성원이면 다

알수 있듯이 뚜렷한 실적은 물론, 도덕적·행정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면서 "유리알처럼 투명한 대학사회에서 조그만 흠결이라도 있다면 결코 선거에서 선택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서거석 예비후보가 전북대 총장 재임기의 업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총장 재임기에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끊임 없는 소통과 실력이었다면서, 개혁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연임에서 예비후보는 끈질긴 소통의 리더십으로 대학 구성원 모두를 개혁의 주체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최근 교육감 선거가 흑색선전으로 혼탁해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서 "총장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주장일 뿐, 서거석 예비후보를 잘 아는 우리 전북대 전·현직 교수 및 연구자들은 서 후보의 능력과 헌신성 청렴성을 보증하며, 그가 우리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